

데이브 매튜슨 박사, 그분은 어디로 오시나요 ?

세션 1, 파루시아의 문제, 지연 및 가능한 해결책

© 2024 데이브 매튜슨 (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가 어디에 오는가?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id Mathewson 입니다. 세션 1, 파루시아의 문제, 지연 및 가능한 해결책.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콜로라도 주 덴버에 있는 덴버 신학교의 신약학 부교수인 데이브 매튜슨입니다. 나의 관심 분야 중 하나는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입니다.

나의 가장 최근 책 중 하나는 종말론과 관련된 주제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계시록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며 파루시아의 지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몇 강의에서 우리는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 그 주제를 고려하고 신약성서, 즉 파루시아의 지연,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신약성서,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때로 자신이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학자들이 부르는 것, 또는 조직 신학의 용어를 사용하여 그의 재림이라고 부르는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아마도 생각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을 발견합니다. 일생,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의 일생까지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나라, 구약의 저자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가까웠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신약성서 저자들도 예수님이 즉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 중 그리고 독자들의 생애 중 어느 시점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믿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 그러나 현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 세기에도 오시지 않았고, 2세기에도 오시지 않았으며,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 저자들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할 때, 그분은 얼마나 빨리 다시 오실 것입니까? 초기 신조 선언문, 사도신경과 같은 초기 신앙고백 선언문 및 일부 고대 신조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교회의 많은 신앙고백서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심판하여 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대 교리 선언문은 사도신경과 같은 일부 초기 신조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지만 현대 교회의 많은 교리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신학자들이 다시 종종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부르는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첫 번째 오심과 구별되며, 그리스도의 재림은 눈에 띄고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의 초기 신조와 현대의 교리적 진술에서 중요한 방식입니다 .

우리의 교리적 진술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본문 모두에서 종말, 종말의 도래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그리스도의 곧 재림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시사 문제를 살펴보고 그것을 성경의 예언 및 성경 본문과 대조하여 우리가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본 것,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들이 이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끝에 얼마나 가까웠는지 예측하거나 더 나아가 날짜를 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3세기나 4세기, 15세기나 16세기, 20세기의 초기 시도, 그리고 21세기의 더욱 최근의 시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신약성서의 예언에 기초하여 종말을 예측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곧 올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예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은 흐르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신약성경 문서가 기록된 지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신약성경 문서 자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의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신약성서 자체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거나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자들의 생애와 예수 또는 신약 저자들의 생애 내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을 합니다. 성경 본문 자체가 아직 오지 않은 종말에 대한 기대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와 우리가 다루고 싶은 문제, 또는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아직 오지 않은 끝의 문제, 즉 신약성서 저자들과 예수님이 곧 끝을 예언한 문제입니다.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신앙의 위기를 일으키거나 만들어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신약성서 저자들과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을 예언하신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종종 성경에 반응하고

극단적인 회의론으로 대합니다. 확실히, 예수께서 이 점에 대해 틀렸고 신약성경의 저자들도 이와 같은 점에서 틀렸다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나머지 부분을 실제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셨고 추종자들의 생애 내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틀렸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애와 독자들의 생애 내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야고보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그들이 틀렸다면, 그것은 성경 자체의 가르침의 신뢰성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만약 그들이 이것에 대해 틀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신뢰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나는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 믿음을 버리기까지 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과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틀렸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신약성서의 저자들, 특히 복음서의 일부 본문을 예로 들면,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진술을 하고, 아마도 첫 번째 사건을 이끈 진술을 합니다. 기독교 1세기의 저자들과 최초의 독자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사역 초기, 세 공관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마태복음 4장 17절,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까웠 나요? 첫 번째 독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셨지만 그 종말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는 다음과 같은 진술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9:1, 마태복음 16:28, 누가복음 9:27에서 예수께서는 여기 서 있는 너희 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추종자 중 일부가 죽기 전에 자신의 마지막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나 그들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수님의 나라는 결코 도래하지 않았으며, 2,000년이 지난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3:30, 마태복음 24:34, 누가복음 21:31의 다른 예는 예수의 소위 종말론적 담론, 즉 감람산 담화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재림과 장차 올 나라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세대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마도 예수께서는 동시대 사람들, 추종자들,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왕국은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벗어나서 우리는 유사한 내용을 말하는 신약의 다른 곳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구절들을 다룰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신약성서 저자들은 오지 않을 종말을 예언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틀리고 착각한 것입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바울은 시간이 짧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도록 독신자들에게 권합니다. 확실히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틀렸는가? 또는 장례식에서 자주 읽히는 유명한 구절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17절과 같은 구절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나서 우리가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여 말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명백한 언급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고 역사의 정점을 이루기 위해 역사의 마지막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살아 있을

사람들로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고 현장에서 지나가고 그 재림은 결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야고보서 5:7과 같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주의 강림이 가까웠 으니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 판사가 문 앞에서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아마도 1세기의 그의 독자들은 주님의 오심이 일어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는 베드로전서 4:7.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끝. 음, 얼마나 가깝나요 ?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또 베드로는 죽었고 아마도 그의 독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을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이동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3절, 그리고 책의 끝인 22장과 22장과 6, 10, 20절에서 요한은 어떤 사건들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특정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그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리라” 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친히 “내가 속히 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존과 그의 독자들은 모두 현장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긴장,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위기를 야기했습니다.

신약성경 본문 자체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긴장이 너무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돌아섰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보고 읽은 이러한 텍스트 중 일부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주요한 것들 중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의 저자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1세기에 그분의 재림을 예언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신약성경 본문을 다루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길을 닦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들 중 몇 가지를 탐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텍스트가 처리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반스앤노블 같은 우리 서점의 책장에서 이 책들을 다 본 적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특정 신약성서의 본문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에 대답하고 다루는 유명하고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1세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와 사도들, 독자들, 청중, 1세기 초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한 가지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긴장이 견디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성경이 틀렸음에 틀림없다고, 예수도 틀렸고, 사도들도 틀렸다고 결론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독교 이야기는 그냥 큰 농담이 아닌가? 만약 그들이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면? 이 질문을 처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을 무시하고 처리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일에 바쁘거나 몰두하거나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것이라는 크고 웅장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무시하고 처리를 거부하세요. 하지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생애 동안, 1세기의 독자들과 사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곧 재림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다루는 세 번째 방식은 내가 실패한 예언적 견해라고 부르는 견해이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와 사도들은 틀렸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마지막 왕국이 가까웠다고 예언하셨을 때, 그 왕국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착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서 있는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틀렸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루시아에 다시 오실 때 자신이 살아 있을 것이라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해 끌어 올려져 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바울이 시간이 짧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잘못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인간일 뿐이므로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견해는 무엇보다도 잘 알려진 신약성서 학자,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유명한 신학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예수를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21세기에도 예언 전문가들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예언한 일종의 묵시적인 설교자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과 설교를 통해 세상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하셨고, 세상 끝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께서는 착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틀렸고, 대신에

그의 가르침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보다 현대적인 예는 Bart Ehrman이라는 유명한 개인의 글 중 일부입니다. 반스앤노블 서점이나 기타 서점에서 그의 작품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중적인 수준의 작품이다.

Bart Ehrman은 또한 예수를 묵시적인 유형의 설교자로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단지 미래를 예언하셨을 뿐이고 틀리고 착각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종말의 때를 예측하고 날짜를 정하는 많은 현대의 예언 설교자들처럼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 즉 실패한 예언관에 따르면, 예수는 단지 종말을 설교하는 묵시적인 설교자일 뿐이고, 자신의 생애 안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틀렸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 이 견해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역사에 개입하여 그의 재림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부정합니다. 그것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분을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을 잘못된 인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와 같은 견해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은 견해를 갖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세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를 그 목표와 정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결국 그렇게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견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를 보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관점, 네 번째 관점은 내가 AD 70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서기 70년에 일어난 일은 1세기 기독교와 1세기 유대교에서 다소 소란스러운 사건이자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사건입니다.

이 견해는 대부분의 본문, 특히 복음서에 있는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야고보서,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있는 다른 본문에서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편지나 문서 또는 말씀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예언하시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하실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시는 것, 곧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오심입니다. 그 성전은 실제로 서기 70년에 로마인들이 급습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한 서기 7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가깝고 곧이라는 이 언어를 이해합니다. 신약성서가 기록된 지 거의 2,000년이 지난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그들은 곧임 과 가까움 이라는 언어를 문자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여 예수님의 오심이 곧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웠지만, 그것이 말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가까운 오심, 더 가까운 오심, 즉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재림입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중 하나는 NT Wright입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꽤 많은 글을 썼고, 특히 재림 역사의 마지막에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는 것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봅니다. NT Wright가 그것을 믿지 않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예수께서 그의 곧 재림, 그의 오심, 그의 독자들의 생애 내에 도래할 그의 파루시아를 기대하실 때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

실제로 신약성서의 독자들은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서기 70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려 재림하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이 성경을 높은 관점에서 볼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역사에 개입할 수 있는 사물에 대해 이 견해는 예수가 단순히 세상의 종말을 예언했고 그가 틀렸고 착각했다는 실패한 예언 견해보다 확실히 더 낫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신약성경 저자들이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의 질문은 그것이 모든 본문을 설명하는지 여부입니다. 나중에 그 텍스트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점은 고전적 세대주의적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세대주의적 견해는, 약간만 뒷받침하자면, 하나님께서 역사 전반에 걸쳐 특정 기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경륜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시는 율법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과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을 다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경륜 아래 있습니다.

장래에는 천년왕국 경륜이 있게 될 것이다. 세대주의는 하나님이 역사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기간 동안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전적 세대주의가 잘 알려진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의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이 관념과 일치하는 구별,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식 사이의 구별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일련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에 다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에 대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구약의 모든 예언 본문이 다윗 가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온 땅 위에 그의 왕국을 세울 것이며, 그가 회복할 왕국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로. 그분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새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구약성서, 고전 세대주의에서는 약속된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의 나라가 그의 생애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의 약속을 미래의 때로 미루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시대를 정하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족속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은 다시 한 번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거부한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제시하고 있는 바로 그 왕국을 그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날, 적어도 거의 2,000년 후까지 연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왕국을 다시 제공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며 그 후에 그와 새 언약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복음서의 본문입니다.

여기 서 있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큰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대의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왕국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마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것을 연기하시고, 제의를 철회하시고, 그것을 미래의 날로 연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지금은 교회의 때요,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 다른 신약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살아 남아 있는

우리도 주님을 만나러 끌어 올려져 갈 것입니다. 공중에서. 야고보가 이르되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인내하라.

또는 베드로전서 4:7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바울이 시간이 짧다고 말할 때. 그들은 다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휴거로 알려진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의 제안을 반복하고 자신이 지체했던 약속을 다시 제안하기 전에 하나님은 교회의 사람들을 휴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 번 제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1세기에 최초의 제안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참되고 실제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백성인 교회를 창조하셨고, 어느 날 휴거되어 이스라엘에 왕국을 다시 제공하시기 전, 예언의 시계를 다시 시작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루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적 세대주의는 두 가지 다른 도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차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것은 1세기에 일어날 예정이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둘째는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휴거입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잘 알려진 사람으로는 여러분 중 일부가 잘 알고 있는 오래된 Schofield 연구 성경, Ryrie 연구 성경, John Walvoord와 이와 같은 견해를 장려한 일부 오래된 세대주의 학자 및 작가의 글이 있습니다. . 비록 그것이 예수와 독자들의 생애에 도래할 왕국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복음서의 일부 본문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했다고 말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래로 연기해야 했습니다.

소위 휴거라고 부르는 텍스트들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시간이 짧다고 말한다면, 혹은 살아 있는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 끌어 올려졌다고 말한다면, 바울이 그 휴거가 자신의 생애 동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휴거를 의미한다면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

그래서 고전 세대주의적 견해는 일부 본문을 다루었지만, 교회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휴거 구절에 할당하는 다른 본문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는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리해야 한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오실 것이라고 제안하겠습니다. 나는 신약성서가 두 번이 아닌 휴거와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고전적인 세대주의적 견해가 많은 우리 교회에서 매우 인기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비록 그 이름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살펴보고 싶은 여섯 번째 견해와 마지막 견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건부 예언 견해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크리스토퍼 헤이즈(Christopher Hayes)라는 학자가 편집한 최근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인자가 오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조사는 다소 길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이 책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지연되는 문제를 다룬 최초의 상세한 책 길이의 책입니다. 1세기 저자, 신약성서 저자, 예수 자신의 가르침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경 본문,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주권과 관련된 철학적 문제, 신학적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에세이에서 기본적으로 이 책은 신약성서 저자들과 예수가 그들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곧 재림을 예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은 청중의 반응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고전적인 경륜의 관점과 조금 비슷하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실제로 1세기에 제안되었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충분히 반응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은 늦어졌고, 충분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제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세기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은 참된 예언이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1세기에, 그리고 아마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지연되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복음에 반응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한 견해는 베드로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암시 하는 베드로후서 3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 견해 중 일부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한 관점 중 일부에는 아마도 약간의 변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러한 견해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완전히 적절하지 않거나 그 중 한두 가지가 대부분 잘못된 경우,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이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 설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웠고 곧 임박했다는 신약성서의 임박한 가르침과 지연에 대한 가르침 사이에 균형을 제안하는 설명입니다.

신약성서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잠시 지연될 수 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긴장 속에서 살았고 오늘날 우리도 임박함과 지체 사이의 긴장 속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은 복음서와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의 곧 재림에 관한 진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 지체에 대한 암시나 암시는 그리스도께서 즉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가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지적해야 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다른 사항은 그리스도께서 독자들의 생애 동안에도 즉시 오실 수 있다는 즉각성과 임박성에 대한 강조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끝을 예측하는 것.

예수께서는 단지 현대의 예언 설교자로서 예언하고, 표적을 보고, 끝이 언제 올 것인지 예언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예외 없이 신약성경,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임박함, 곧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약성경의 강조가 항상 거룩한 삶을 위한 동기의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곧 재림에 대한 강조는 독자들의 삶에 거룩함과 성화와 반응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끝을 예측하거나 끝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또는 끝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열쇠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서 저자들은 예수님 자신을 시작으로 그분 자신의 가르침을 시작으로, 신약성서 저자들은 이미 종말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하고 예언한 마지막 왕국인 그리스도의 초림은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마지막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기술적으로 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말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마지막 완성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그들이 이미 살고 있는 마지막 때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하고 하나로 묶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제 우리가 이

강의의 나머지 부분과 다음 강의에서 할 일은 이러한 구절 중 일부를 보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전체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언급한 많은 주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1세기 독자의 삶과 생애에 그리스도의 곧 재림을 예측하거나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본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진리를 말씀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친히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하라. 이런 텍스트와 어떻게 정사각형이 되나요? 따라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신약성경 본문 중 일부를 살펴보고, 좀 더 자세히 풀어서, 파루시아 지연 문제와 관련된 가르침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신뢰성, 성경의 신뢰성, 예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의 신뢰성, 예수의 추종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신뢰성에 대해 말합니다.

복음서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설정한 몇 가지 가정과 용어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나는 신약성서의 책들이 실제로 그 책들을 썼다고 주장하는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나는 몇몇 신약성서의 책들을 알고 있는데, 일부 신약성서 학자들은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썼거나 바울이 그의 이름이 붙은 편지 중 일부를 썼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나는 논쟁하거나 반복해서 언급하지 않고 바울이 실제로 자신의 것으로 알려진 모든 편지를 썼다고, 베드로와 요한과 그들의 이름으로 알려진 책들이 실제로 그들을 쓴 저자라고 가정할 것입니다.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기술적으로 문서 자체에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복음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한 초기 교회 전통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초기 증언이 신뢰할 만하다는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문서 자체에서든 교회 전통에서든 이 책에 붙은 저자의 전통적인 이름이 이 책의 저자에 대한 올바른 견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작업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어에 관한 한 파루시아(parousia) 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종종 파루시아(parousia), 그리스도의 재림, 그의 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별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분이 태어나시고,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때입니다. 그러나 나는 재림,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하겠습니다. 파루시아(parousia) 라는 단어는 존재 또는 출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세기 그리스어에서는 다소 일반적인 의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성서 저자들은 역사를 마무리하고 심판을 가져오고, 구원. 다시 말하지만, 조직신학자들은 보통 그것을 그분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하거나 동일한 사건을 지칭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언급한 또 다른 가정은 재림과 휴거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은 고전적인 세대주의 관점과 세대주의 학파에 속하는 다른 견해에서 공통적이지만 말입니다. 세대주의를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대중 기독교조차도 종종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교회의 휴거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국을 시작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것을 구별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러한 구별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역사의 마지막에 단 한 번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작업할 가정 중 일부이며 일부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바로 복음서 속으로 뛰어 들어가 봅시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서문에서 그 중 일부를 언급했습니다.

예수의 말씀 중 일부는 끝이 가까웠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파루시아가 예수 자신의 생애 또는 제자들의 생애 중에 즉시 일어날 것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왕국 도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제안하실 때 무엇을 제안하셨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국은 무엇이었나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라는 용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용어적 설명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둘 다 똑같은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그 둘을 구별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복음서가 있고, 또 다른 복음에서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건, 똑같은 말씀이 천국에 관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둘은 별개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제안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왕국은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소나 지리적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이나 스스로를 왕국이라고 부르는 다른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팔레스타인 땅과 같은 지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제한하고 싶어하는 천년왕국과 같은 미래의 기간을 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주로 현재나 미래의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왕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즉 그의 왕적 능력을 가리킨다.

그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유명한 신약 신학자 조지 엘돈 래드 (George Eldon Ladd)가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왕적인 권세를 의미한다는 이 견해를 대중화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통치라는 역동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왕국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주로 일정 기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주로 위치, 지리적 영역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통치, 그분이 사람들과 땅 위에 행사하실 왕권을 동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분은 이것을 어디서 얻으십니까? 그는 무엇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의 독자들은 무엇을 이해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독자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내용을 대체로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하십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은 구약성경이다. 구약은 다가오는 왕국, 즉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퍼지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실 때, 그가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그가 열방을 심판하실 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의 적들은 패배할 것이고, 다윗의 계열에 왕이 올 것이며, 메시아가 보좌에 앉아 그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메시아는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고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왕국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과 37장과 같은 본문에서 이 내용을 읽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이러한 구성 요소가 메시아를 통해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예상합니다. 다윗은 회복된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들의 적들을 물리치고 그들과 새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왕국이었으며 , 아마도 당시에 예수께서 제시하셨던 왕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문제의 일부는 이 왕국이 도착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과 15절, 마태복음 4장과 17절,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읽는 본문은 예수님의 성인 사역을 시작하는 본문이며,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임을 특징짓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명입니다 . 그 왕국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1세기에도 오지 않았고, 분명히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성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 느니라 구약에 약속된 그 나라가 가까웠 느니라 .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왕국이 가까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선포하셨는가? 다시 말하지만, 적어도 대중적인 수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George Eldon Ladd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받아들여 예수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 왕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마지막 왕국을 자신이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착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조지 엘든 래드 (George Eldon Ladd)는 거의 진부해졌지만 여전히 매우 사실인 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이 아닌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안하셨고 그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미래의 날, 즉 우리가 재림과 연관시키는 날, 그분이 오실 날, 아직 그분이 오셔서 왕국을 가져오실 날에 앞서 처음 부분적인 형태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비만.

그러므로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 본문 중 일부에는 우리가 다루어야 할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에 있는 이 본문과 예수께서 왕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신약성경의 다른 많은 본문은 사람과 사람과 이제 여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왕국은 참으로 가까웠다 .

그것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최종 형태, 즉 부분적으로 개시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 나는 신약의 나머지 부분이 모두 구약에서 예언된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실이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미 개관한 상태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미 통치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 그것은 일정 기간이 아닙니다. 지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왕의 통치입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존하시고, 그분은 이미 그 왕국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느 날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 왕국이 최종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왕국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탄생, 기적, 사역, 가르침, 죽음, 부활이 왕국을 시작하고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미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만함과 완전함과 최종성으로 올 날이 올 것입니다. 아직은 아닌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다른 구절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 이제 남자와 여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바알세불 곧 사단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내가 사단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가 누구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성령의 임재는 새 언약의 일부였으며, 구약 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였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의 나라,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사탄의 나라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이 본문들로부터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웠 던 왕국을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 예수께서 결코 실현되지 않는 왕국을 약속하셨으므로 그분이 틀렸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왕국이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은 존재했다.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완벽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완성될 날을 앞두고, 그리고 그 날을 예상하여 부분적인 형태로 개시되고 실현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다른 모든 신약성서 저자들도 이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신약성서 저자들이 자신들이 이미 종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렇다고 생각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종말이 이미 도래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종말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종말에 이르렀습니다. 단지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이나 다가오는 왕국,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의 왕국,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복음서의 다른 본문과 예수의 가르침을 고려할 것입니다. 파루시아(parousia), 제자들의 생애 동안. 예를 들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서 있는 너희 중에 천국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아니할 자도 있느니라. 아니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음,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그 텍스트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디에 오는가?(Where is His Coming?)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id Mathewson입니다. 세션 1, 파루시아의 문제, 지연 및 가능한 해결책.